

## 그대가 진정 그리스도인이라면

사도행전 11:19-30

오늘 본문에는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가 나옵니다. 오순절 이후 세워진 첫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. 예루살렘 교회는 당시 수천 명이 모이는 대형 교회였습니다. 안디옥 교회는 두 번째로 세워진 교회였습니다. 그런데, 성경에 딱 세 번 나오는 “그리스도인”이라는 칭호를 받은 교회는 먼저 된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라 뒤늦게 세워진 안디옥 교회였습니다.(행 11:26b) 이 안디옥 교회는 무명의 여러 다민족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진 다민족 교회였습니다.(행 11:19-21a) 이 곳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처음으로 “그리스도인”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는데,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들인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지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.

### 1. 믿고 주께 돌아온 사람

“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매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” (행 11:21) 그리스도인이 되는 출발점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에게 돌아오는 것입니다.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듣는 것, 많이 아는 것, 관심이 있는 것만으로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. 바울을 심문했던 로마의 유대 총독 벨릭스는 자주 바울을 불러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고, 심판에 관한 이야기도 들으며 두려워하였지만, 믿고 돌이키지 않습니다.(행 24:24-26) 그는 자기의 성공과 돈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. 그리스도인을 영어로 크리스찬(Christian=Christ+ian(I am nothing))이라고 하는데, 그리스도가 전부요 나는 아무 것도 아닌 존재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. 예수님이 전부가 되는 것, 예수님에게 폭 빠진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.

바울은 많은 학식, 로마 시민권, 왕족인 혈통 등 모든 자랑을 내려놓고 예수님만 알았고 예수님만 전파했습니다. 그는 심문하던 아그립마 왕이 바울보고 미쳤다고 할 정도로 예수님에게 깊이 빠져 있었습니다. 이에 바울은 자기가 미친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모든 사람이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. (행 26:23-25, 29b) 예수 믿으면서 미쳤다는 소리 들어 보셨는지요? 내 삶의 모든 것을 예수로 채워 보셨는지요? 삶이 달라야 합니다. 미친 듯이 믿고 증거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.

### 2. 교회에서 가르침을 받는 사람

예수님을 믿고 돌아 온 사람들은 성장해야 합니다. 교회에서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.(행 11:26) 다른데서 가르침을 받으면 안 됩니다.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가 가르쳤고 큰 무리가 배웠습니다. 무엇을 배웠을까요? “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” (행 11:22-23) 바나바는 모든 사람에게 “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”는 것을 권하였습니다.

그 후에 바나바는 다소에 가서 오랫동안 숨어 지내던 바울을 찾아 안디옥 교회에 와서 함께 가르쳤습니다. 바울이 무엇을 가르쳤을까요? 바울 자신도 예수님께 돌아선 후 다소에서 오랫동안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었습니다. 흔들리지 않고, 굳건한 마음으로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주와 함께 교제하는 것은 중요한

신앙의 자세입니다. “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” (벧전 4:16)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려움을 당할 때에 부끄러워하지 말고, 흔들리지 말고, 끝까지 붙잡고 사랑하시기 바랍니다. 엘리야는 광야교회에서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는 삶에 대해 가르침을 받았습니다.(왕상 17:2-7) 주님이 허락하신 자리가 아무리 환경이 나빠도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면 됩니다. 그곳에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습니다.

### 3. 걱정하고 실행하는 사람

안디옥 교회는 늦게 되었지만, 세상의 어려움에 대해서 돕겠다는 걱정을 하고 실행을 하였습니다. (행 11:27-30) 교회는 이런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. 이웃에 대한, 형제에 대한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. 그리고 실행을 하여야 합니다. 나, 내 가정, 우리 교회의 범주에 머물러 있으면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. 교회는 눈이 열려야 합니다. 세상에 대해서 무엇인가 책임 있는 걱정과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. 그리스도인으로서 걱정은 있었으나 실행이 없을 때 큰 시련이 찾아옵니다. 여호수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겠다고 걱정했습니다.(수 24:24) 그러나 그들은 말만 했을 뿐 실행함이 없었습니다.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겠다고 걱정한 것을 실행하지 않았을 때 사사시대라는 어려움이 찾아 왔습니다. (삿 2:2b)

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입니다. 말은 “예”하고 행동은 “아니라”하면 안 됩니다. (고후 1:17-19) 우리가 따라가야 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항상 말로 “예”하시고 행동도 “예”이셨습니다.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의 말도 하나님께 “예”하고 행동도 “예”이어야 합니다. 마태복음 21장에 포도원 주인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. 가서 일하라고 하니 예, 아니오, 아니오, 예 했습니다. 세상의 변화를 위해 그리스도인들의 결단과 행동이 필요할 때입니다.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아야 합니다.

사랑하는 성도 여러분!

그리스도인은 믿고 주께 돌아온 사람입니다. 예수님에게 폭 빠진 사람이고, 세상을 향해 “나와 같이 되라”고 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. 그리스도인은 가르침을 받는 자들입니다.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는 삶을 배우는데 예수님과 교제를 배우고, 어려울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을 배우는 사람입니다. 그리스도인은 걱정하고 실행하는 사람입니다. 하나님을 향해 말도 “예”하고, 행동도 “예”이어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. 가장 아름다운 이름을 가졌으니, 가장 아름다운 삶을 살아갑시다. 그리스도인이여!

### ○ 나눔의 시간 ○

1. 그리스도인이 되는 출발점은 무엇인가요?
2. 안디옥교회에서 바나바와 바울이 권하고 가르친 것은 무엇인가요?
3.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보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요?
4. 그리스도인으로서 혹시 내 삶에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무엇이 있는지 함께 나누어 봅시다.